

# 경사·자갈길·모굴 거칠 것 없다... 오프로드 끝판왕

## 자동차 시승기

쌍용차 '렉스톤 스포츠 칸'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인상적  
내리막길도 스스로 속도 조절  
바퀴 떠있어도 험로 탈출시 여유  
집칸도 넓어 레저활동 안성맞춤

"저 길을 통과할 수 있다고요?"

쌍용자동차가 준비한 오프로드 코스는 언덕경사로, 사면경사, 자갈길, 모굴, 범피와 통나무 등으로 이루어졌다. 운전대를 잡고 코스를 마주하니 주행 중 차량이 전복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시승을 진행하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픽업트럭 렉스톤 스포츠 칸의 뛰어난 험지 탈출 능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

지난 9일 서울 양재에서 강원도 춘천 소남이섬을 왕복하는 미디어 시승 행사를 통해 렉스톤 스포츠 칸 프로페셔널과 파이오니어 모델에 탑승했다. 국도와 고속도로를 거쳐 소남이섬에 설치된 오프



오프로드 주행 중인 렉스톤 스포츠 칸

로드 체험까지 진행했다.

칸을 시승하며 인상적인 것은 험로 주행 능력이었다. 언덕경사로 고점에서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후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스위치를 눌렀더니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속도를 조절했다. 자갈길 주행에서도 큰 소음은 없었다.

이어 모굴과 범피 코스에서는 한쪽 바퀴가 미끄러지거나 공중에 떠 있더라도 험로 탈출 장치(LD)가 성능을 발휘해 무

난하게 험지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칸을 처음 마주했을 때 느낀 것은 커다란 차체와 높은 차고였다. 칸은 전장 5405mm, 전폭 1950mm, 전고 1855mm, 휠베이스 3210mm이다. 렉스톤 스포츠칸보다 전장과 전고 휠베이스가 각각 310mm, 15mm, 110mm 늘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넉넉한 집칸이다. 캠핑 등 여가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을 적재하기에 공간이 충분해 '레저스포츠



/쌍용자동차

의 끝판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아 보였다. 성인남성이 누워도 남을 만큼의 넓은 공간이었다.

게다가 리프팅이 적용된 파이오니어 모델의 경우 17인치 휠이 탑재됐다. 타이어에 프로페셔널 모델보다 약 6PSI가 많은 40PSI 공기압이 들어가 700kg 중량을 거뜬히 견딜 수 있다.

내부 공간의 경우 2열 좌석은 신장 180cm가 넘는 사람들이 탑승하기에는 다소

좁은 감도 있었지만 장거리를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았다.

온로드에서의 주행은 여타 SUV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차체가 높은 운전대에서의 시야확보가 잘 되었다. 가속페달을 살짝 밟아보니 묵직하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열 좌석에서 느껴지는 다소 거친 승차감과 브레이크 페달에 힘을 쥐 밟지 않으면 반응속도가 늦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노면 충격과 소음은 생각보다 잘 흡수해냈다.

칸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합리적인 가격이다. 트림별로 파이오니어X 2838만원, 파이오니어S 3071만원, 프로페셔널X 2986만원, 프로페셔널S 3367만원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중식 쌍용차 대표이사 사장은 "렉스톤 스포츠 칸은 지난 3월 출시 후 4영업일 만에 1000여대가 예약됐다"며 "렉스톤 스포츠 칸 등을 앞세워 올해 판매량 16만3000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한국지엠 쉐보레 2019 볼트EV.

## 쉐보레 전기차 '볼트EV' 사전계약 시동

### Advertorial Corner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 개발  
편의성·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2년 연속 계약 개시 당일 완판 기록을 세운 한국지엠 쉐보레 '볼트EV'가 사전계약을 알리며 2019년 국내 전기차 계약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쉐보레 볼트EV는 국내 장거리 전기차 시대를 연 기념비적인 모델이다. 볼트EV는 383km라는 획기적인 1회 충전 주행거리와 합리적인 가격에 힘입어 지난 2년 연속 계약 개시 당일 완판 기록을 세우며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어왔다.

볼트EV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로 개발된 전기차라는 점이다. 국내 출시된 다수의 경쟁모델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기차 모델들이다. 반면 볼트EV는 아예 전기차만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돼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반 내연기관 플랫폼과 달리 엔진룸 쪽 공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대시보드 쪽에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차체 하부에 수평으로 배치한 배터리 패키지 덕에 돌출형 터널이 없는 평평한 2열 바닥 설계와 더불어 첨단 압축형 씰 시트(Thin seat)로 넉넉하고 편안한 2열 좌석 공간을 실현했다. 실제로 볼트EV는 경쟁 모델이 갖추지 못한 넓은 널찍한 레그룸과 헤드

룸을 제공한다.

하부에 위치한 배터리는 차체의 무게 중심을 낮추는데 기여해 뛰어난 운동성능까지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볼트EV는 최고출력 204마력과 36.7kg·m의 최대 토크의 성능으로 시속 100km까지 7초 이내에 주파하는 순발력까지 겸해 전환경 모델임에도 뛰어난 운전 재미를 선사한다.

세계 최초로 전기차를 양산한 노후를 바탕으로 383km라는 충분한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갖췄지만, 회생제동을 통해 실주행 시 일반적으로 주행가능거리는 더 늘어난다. 실제로 볼트EV는 출시 당시 서울에서 제주까지 1회 충전만으로 500km에 이르는 주행에 성공해 인종거리보다 긴 실주행거리를 증명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보인 볼트EV는 편의성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했다. 2019년형 볼트EV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존 통합되어 있던 에어컨/히터 버튼을 분리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간편하게 원하는 최대 충전량을 맞출 수 있는 충전 레벨 설정 기능을 추가했다. 또 적정 공기압 알림 기능을 탑재해 타이어 공기압 주입 시 적정 공기압에 이르면 소리와 점등으로 알려주는 등 편의성을 업그레이드했다. 쉐보레는 볼트EV 고객의 서비스 편의 향상을 위해 볼트EV 서비스 네트워크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볼트EV 고객들은 수도권 22개소를 비롯한 전국 총 58개소의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점검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차 코나EV로 싱가포르에서 카셰어링 시작

동남아 첫 전기차 호출 서비스  
그랩 측에 코나EV 20대 공급

현대자동차는 그랩이 최근 코나EV를 활용한 카셰어링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남아시아에서 전기차를 활용해 혁신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이번 서비스 론칭을 위해 코나EV 20대를 그랩 측에 공급했다. 그랩은 연내 총 200대의 코나EV를 구매할 계획이다.

그랩은 코나EV 20대 모두를 소속 운전자에게 대여 완료했다. 그랩 드라이버는 그랩 측으로부터 코나EV를 대여한 뒤 현지 고객에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낼 예정이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하루 대여금액과 크게 차이가 없는 80 싱가포르 달러(약 6만6000원)로 책정했다.

코나EV는 1회 충전으로 4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어 충전 걱정 없이 서비스 제공



그랩엔탈 싱가포르의 카우 이 밉 대표가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대차

이 가능하다. 급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30분내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그랩 드라이버들의 일일 평균 운행거리는 200~300km다.

전기차를 활용한 카셰어링 서비스의 안착을 위해 싱가포르 굴지의 전력 공급 업체인 싱가포르파워그립도 협력에 나선다. 싱가포르파워는 그랩 드라이버들이 전기차 충전소에서 30% 저렴하게 차량을 충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는 그랩과의 이번 협업으로 동

남아 전기차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 시장 선점의 기회를 갖게 되는 동시에 전기차 모델에 대한 고객 경험을 강화해 혁신 기업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11월 그랩에 총 2억5000만 달러를 전략 투자하고 그랩의 비즈니스 플랫폼에 전기차 모델을 활용한 신규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연우 기자

## 벤츠, 3세대 밴 '뉴 스프린터' 국내 선보

다임러트럭코리아는 1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형 밴 3세대 '뉴 스프린터'를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스프린터는 지난 1995년 1세대 출시됐으며 2세대 스프린터는 2006년에 출시됐다. 이번 3세대는 13년 만에 풀체인지된 모델이다. 차량 중량은 3~5.5톤으로 제작됐다. 용도에 따라 길이(4가지)와 높이(3가지)를 조합해 변형할 수 있다.

국내에는 뉴 스프린터 투어러의 319CDI와 519 CDI 총 2개 모델이 출시된다. 파워트레인은 3리터 OM642 V6 디젤 엔진이 7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최고출력 190마력과 최대토크 440Nm의 성능을 낸다.

그동안 승용차나 트럭에만 장착되던



메르세데스-벤츠 '뉴 스프린터' 출시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다양한 안전사양 보조시스템도 대거 추가됐다. 차간거리 조절 어시스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능동형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사각지대·측풍 어시스트 등이 탑재됐다.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도 기본으로 장착된다.

/정연우 기자

## 현대차 설 연휴 시승 이벤트 아반떼 등 250대 지원

현대자동차는 설 연휴를 맞아 총 250대의 귀성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7박 8일 렌탈 시승 이벤트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벤트 당첨 고객을 대상으로 아반떼, i30, 벨로스터, 쏘나타, 그랜저, 코나, 투싼, 싼타페 등 총 250대의 차량을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7박 8일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오는 23일까지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응모 고객 중 당첨자 250명을 선정해 오는 29일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